

<2017 지역상생민관협력세미나>

도시의 마을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 서울 자치구와 농촌마을 상생을 중심으로 -

2017. 11.

이 창 한(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사무국장)
leech671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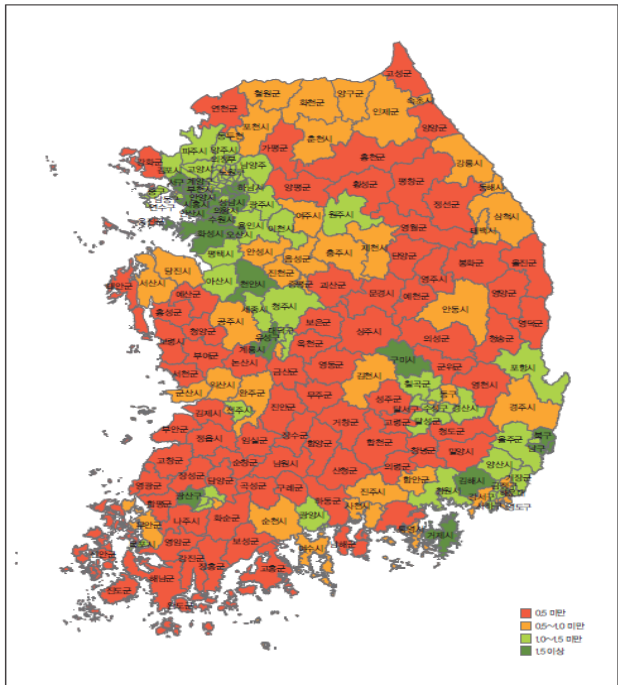
1. 도시의 위기와 농촌의 위기

농촌의 위기와 도시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 고도의 경제성장과정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사회문제 ⇒ 악순환 반복, 고착화

- 사회양극화 및 격차 확대(계층, 도시-도시, 도시-농촌)
- 농촌지역은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 → ‘인구댐’ 형성과 ‘농촌재생’ 전략 절실

[지도 1]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



-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 인구소멸지역** 전망
- 2016년 6월 기준 인구 1만~3만 명대 농촌지역 지자체는 전국에 31곳

<한국고용정보원>(2016)

1. 도시의 위기와 농촌의 위기

농촌의 위기와 도시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 높아져 가는 실업률, 환경문제와 먹거리 안전 등은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

- 20대 실업률 11.3%(2017년 4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00만 명 이상
- 베이비부머 세대 : 전체 인구 중 비중 14.3%, 711만명(2015년 인구총조사)
- 도시과밀화는 환경문제 등을 수반,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협
- 국경을 넘어온 먹거리와 첨가제가 가득한 먹거리로 인해 더욱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을 지경

<먹거리 충분가구와 부족가구의 유병률 : 서울시 지역사회건강조사(2014)>>

<고혈압 유병률>
17.8% → 35.9%

<뇌졸중 유병률>
1.1% → 4.8%

<우울증 경험률>
7.6% → 23.7%

자료 : 문은숙(2017), 시민, 제대로 먹고 있는가?(서울시 먹거리 현실과 정책방향) 발표자료 참조

■ 실업자와 조기은퇴자, 건강화 환경을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엑소더스 감행

- 귀농·귀촌 인구 꾸준한 증가추세
 - ('13년) 423,684명 → ('14년) 488,084명 → ('15년) 488,0854명 → ('16년) 496,048명
 - 2016년 귀농·귀촌 인구 중 50.1%가 30대 이하 젊은층

2.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운동

■ 공적가치 회복을 위한 공동체 형성 및 활동

- 도시와 농촌의 위기로 인한 **삶의 소외감 극복**을 위한 **집단에 소속**하길 희망하는 맥락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에 기여
- 지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시장논리에 물들면서 무한경쟁에 내몰린 상황
- 공공재 및 공공선 등 **공적가치 구현을 정부에 의존하지 못하는 한계** 작동(정부실패)
- 시민사회진영, 지역공동체가 공적가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종속된 지역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2.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운동

■ 도시와 농촌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발전전략은 순환과 공생이 기본원리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생산과 소비, 도시와 농촌, 생태계의 순환과 공생
 -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경제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 보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
 -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제3섹터 전략
 - : 전통시장 활성화, 로컬푸드 시스템, 도농교류, 도시농업 등
-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담보

3. 기존 지역상생(도농상생) 사업의 내용과 평가

중앙정부의 도농교류 사업 유형 및 평가

■ 유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와 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집(2008)>

자매결연형	상품거래형	농촌문화교육형	농촌관광형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 - 1사 1촌 운동 - 제2고향 갖기 운동 - 농활 등 일손 돕기 - 의료지원 교류	경제적 측면에 중점 - 직거래 장터 - 농산물 및 특산물 거래	농촌의 생활문화 교육 - 전통문화 체험 - 농사체험 교육 - 전원생활노하우 교육 전수	농촌의 관광서비스 교류 - 농촌 휴양 - 농촌 관광

■ 평가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획일화된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 결여**
 - 지역 특성 반영 미흡(획일화된 사업),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부족
- 교류의 **지속성과 쌍방향성 부재**
 - 일회성, 단발성 행사, 도시의 농촌지원(단방향성)
- 도시(기업) 및 행정 **의존적인 태도**
 - 상생의 가치 발현 미흡
- 다양한 콘텐츠 부족

3. 기존 지역상생(도농상생) 사업의 내용과 평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내용 및 평가

■ 주요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명
1. 안전한 먹거리 확보	3-2. 체류형귀농 지원사업
1-1. 도심형「농부의 시장」운영 활성화	3-3. 지역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 마련
1-2. 추석 명절 서울장터 운영	공공기숙사 운영
1-3. 지역간 전통시장 상호협력 및 공동마케팅 추진	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
1-4. 김장문화제 참여를 통한 부재료 판로개척 협력	4. 도농연계 일자리 창출
2. 농어촌 체험·교류 활성화	4-1. 도시 중장년층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류협력
2-1. 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추진	4-2. 귀농·귀촌 희망가족 맞춤형 영농교육 지원
2-2. 서울-지역 간 문화·예술분야 상호 교류	5. 지속적 소통·협력체계 구축
2-3. 어린이 농어촌 체험 및 교류 확대	1. 지역상생포럼 구성·운영
식생활 현장 체험교실 운영	2. 서울-지역간 혁신사례 공유·전파
아토피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상생교류협력 사이트 구축·운영
2-4.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4. 지역 재해재난 복구 및 구호 공동 협력
2-5. 지역청년간 상호교류 추진	5.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정책 공유
3. 유휴자원 발굴 및 협력 활용	6. 신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교류
3-1. 지역폐교 활용 자연체험캠핑장 조성 확대	

3. 기존 지역상생(도농상생) 사업의 내용과 평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내용 및 평가

■ 성과 및 한계

○ 성과

- 2012년 이후 기초자치단체 교류확대, 2014년 이후 먹거리, 관광,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 교류영역 확장으로 지역과 협력기반 구축**
- 실·국·본부의 개별적인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통합, 전략적 추진기를 마련, 민관거버넌스 틀 구성**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구성('16년 5월)
- **상시적인 협의와 정보교류 노력** : 지역상생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15년 11월 결성, 10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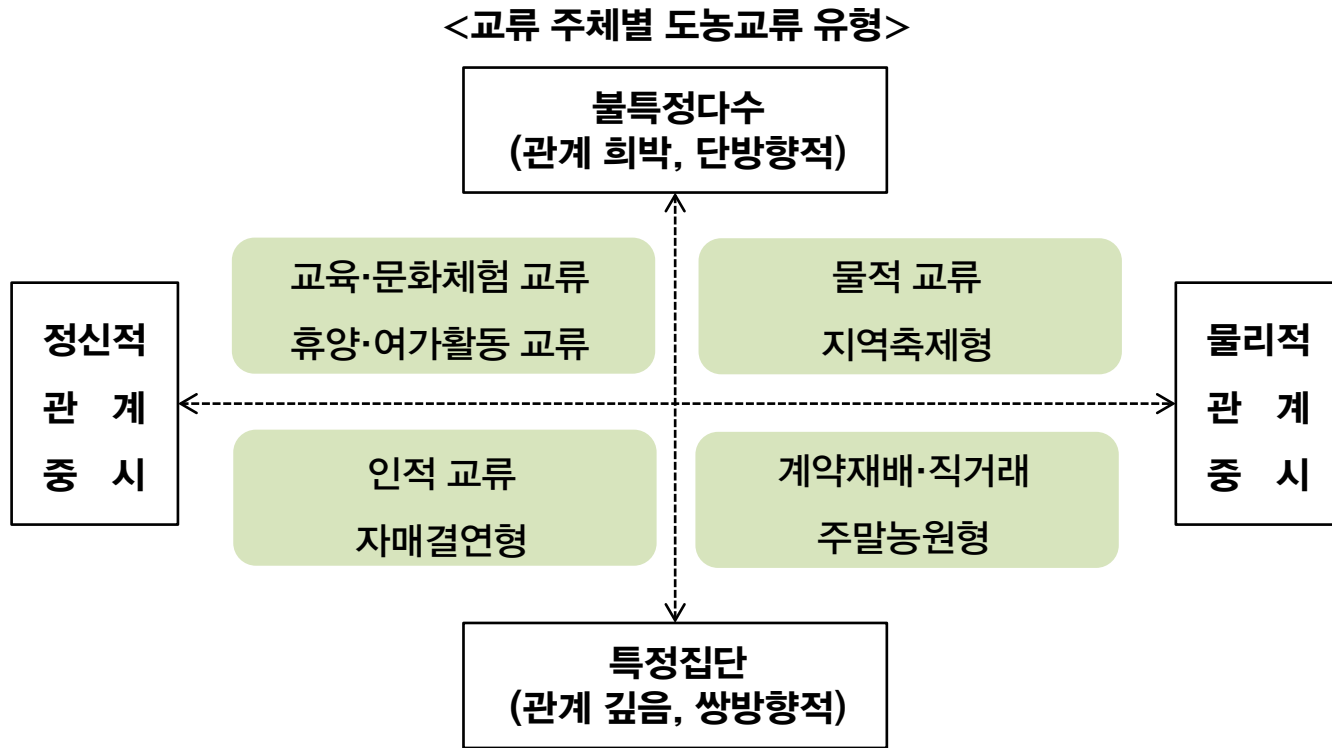
○ 한계

- 각 부문 사업의 분절적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미흡**
 - 실·국·본부, 사업단 내 사업의 연계
- 정책 전 단계(기획, 선정, 집행 등)에서 **민간참여 부족**
 - 서울시민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시도 미약(행정 간 협의 및 집행)
- 지역상생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의 불균형**
 - 주 참여자는 지역주민(농민, 활동가), 공무원과 서울지역 주민 및 활동가 부족, 불특정 다수 대상 사업

4. 지역상생(도농상생) 다시 생각해보기

도시와 농촌 마을의 미래를 서로에게 찾는 지역상생(도농상생)

-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상생(도농상생)



자료: 本壓宏行·三橋伸夫·藤本信義(2000), 김미영 외(2008: 34) 참조하여 재구성

4. 지역상생(도농상생) 다시 생각해보기

도시와 농촌 마을의 미래를 서로에게 찾는 지역상생(도농상생)

도시와 농업 · 농촌의 시대가치 변화와 지향



자료 : 마이클 루이스, 팻 코너티 『The Resilience Imperative』, 2015



자료 : 농경연, '전문가들이 보는 2050 농업·농촌의 미래'(2010.7)

- **도시공동체** :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집, 에너지, 먹거리, 금융, 협동조합, 마을경제, 소유권 이슈 등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력이 있는 대안의 삶과 구조 지향**
- **농촌공동체** : 단순한 생산과 공급의 관계가 아니라 **행복가치를 나누고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 지향**

4. 지역상생(도농상생) 다시 생각해보기

도시와 농촌 마을의 미래를 서로에게 찾는 지역상생(도농상생)

■ 도시와 농촌의 협력적 생태계 구축 지향

- 기존 지역상생(도농상생)이 단순하게 **물적 교류나 시설이용에 기초한 관계** 중심이었다면 **협력적 생태계 구축에 기초한 관계** 필요
- 주체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 또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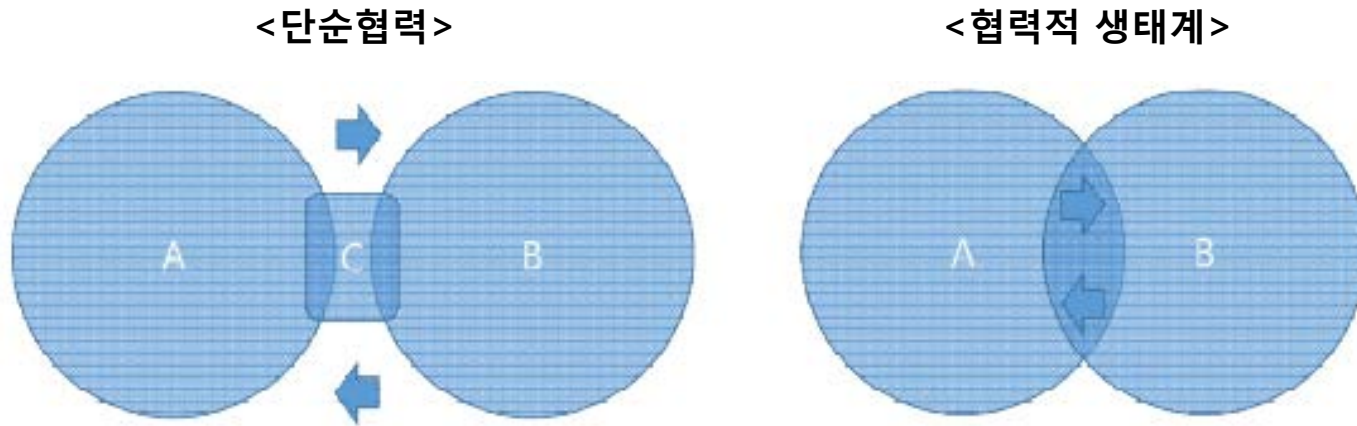
<단순협력과 협력적 생태계 구축 비교>

구분	단순협력	협력적 생태계 구축
지속 시간	단기적, 한시적	장기적, 지속적
범위	제한적	포괄적, 공생환경
구조	거래 관계	커뮤니티, 플랫폼
가치지향	수단적, 전술적	전략적, 궁극적

자료 : 류왕보, '도시와 농촌의 유쾌한 동행', 2014 참조

4. 지역상생(도농상생) 다시 생각해보기

도시와 농촌 마을의 미래를 서로에게 찾는 지역상생(도농상생)



- **단순협력 : 외연의 연계적인 성격**
- **협력적 생태계 접근 : 상호 내포적인 프로세스의 통합적 성격**

자료 : 류왕보, '도시와 농촌의 유쾌한 동행', 2014 참조

4. 지역상생(도농상생) 다시 생각해보기

도시와 농촌 마을의 미래를 서로에게 찾는 지역상생(도농상생)

도시와 농촌의 기존 외연의 연계 방식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사업

- 마을만들기 대학모임 (1달에 1번, 3월 - 11월)
-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1년에 1번)
- 구성원간 다양한 연대-협력 지지, 지원



제10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in 진안
주관: 제10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조직위원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015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지속가능 발전 20년, 로컬거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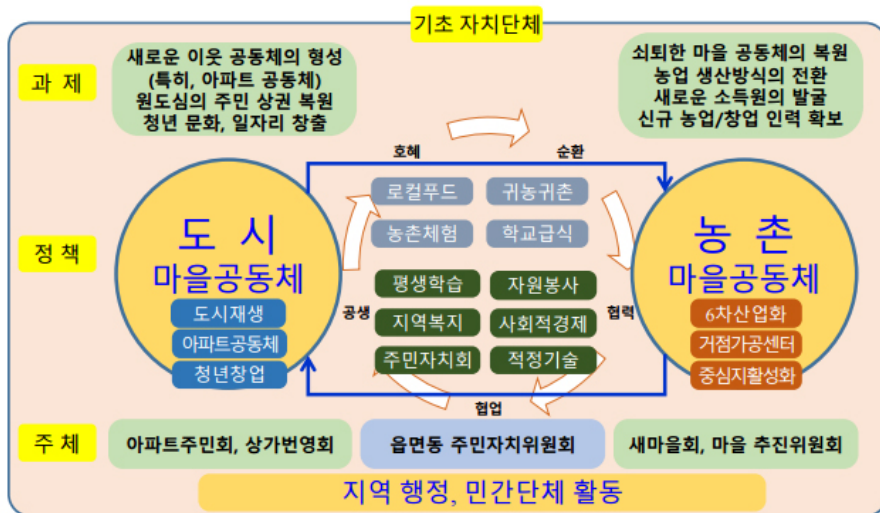
-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좀 더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동행의 과정**을 만들어야 함
 -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동 그룹은 그 어느 영역의 활동보다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션**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공동체 경제와 자치', '신뢰와 협력의 사회', '먹거리안전', '환경생태의 안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회적 교류보다 **지역공동체 간 쌍방향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5. 지역상생(도농상생) 사례

도시와 농촌 마을 협력적 생태계 조성

■ 협력적 생태계 조성 시도 : 충남 천안 도시와 농촌 마을 손잡기

기본방향(정책) : 도시와 농촌의 순환적 관계 _ **도농통합형** 마을만들기



→ 다양한 정책 사업과 활동이 전개중. 상호연계와 민간/행정의 추진역량이 가장 중요

자료 : 구자인, '도농복합 마을만들기 모델', 2016

- 천안시 인구 : 62만 7천명(2016년 기준)
- 천안시 농가인구 : 3만 8천명
- ‘천안시 공동체 지원센터’ 개소(2016. 8)
-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 이룸”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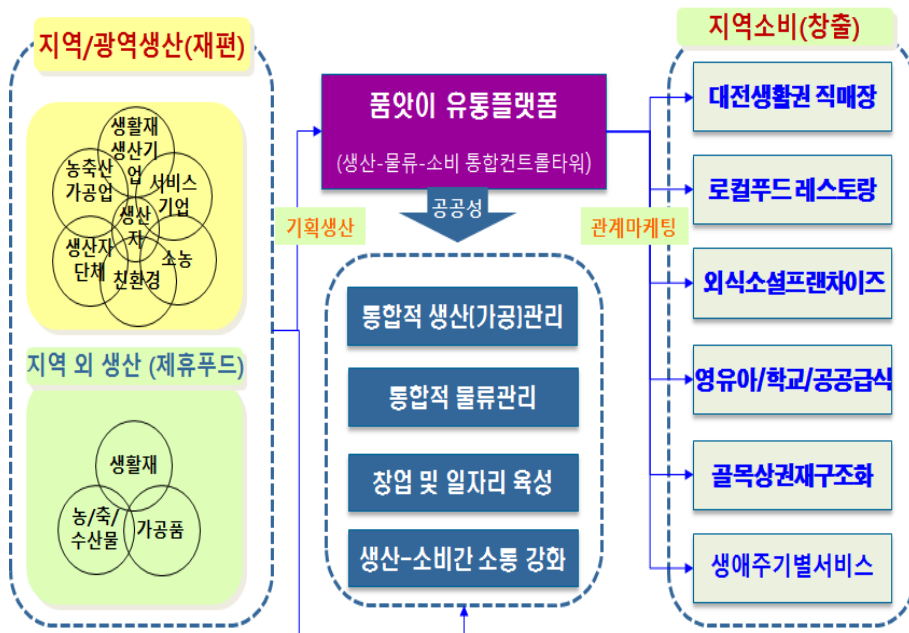
“천안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함께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공감하는 마을만들기가 필요하다”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지원센터로 합의됐다”

- 박두호 천안시 공동체지원센터장 인터뷰 내용 (오마이뉴스, 2016. 9. 1자) -

5. 지역상생(도농상생) 사례

먹거리 유통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조성

■ 협력적 생태계 조성 시도 : 대전 품앗이 사회적협동조합



자료 : 양봉석, '대전 품앗이 사회적협동조합 소개', 2016. 7

- 2012년 품앗이 소비자생협 설립
- 2015년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로 변경
- 조합원 7,000명, 매출 60억원(2016년 기준)
- 먹거리 등 생활재 등을 중심으로 중부권 공동체경제 플랫폼 구축 지향
- 지역사회(도시-농촌) 조직화 기여 결과 및 전망
- 주류경제 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경제조직 사례 창출
-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정 진행
 - : 생산(대전 및 충청권 생산자 조직)
 - : 소비(학교급식까지 진출)
 - : 구매·유통·물류·판매(직매장 6,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 : 충청권 광역 순환경제 네트워크 추진 준비
- 생활연대 공동체 네트워크 조직화 추진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

5. 지역상생(도농상생) 사례

지역농부와 도시소비자 연결 플랫폼을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

■ 협력적 생태계 조성 시도 사례 : 푸드 어셈블리

- 2011년 프랑스에 처음 시작 : 지역농부와 도시소비자 연결 플랫폼(온·오프라인 플랫폼)
 - 프랑스, 영국 등 유럽 9개 나라에서 활성화
 - 가정집, 커피숍, 창고, 야외 등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시장(뤼슈 : Ruche) 개설 : 도시의 호스트가 농부선정 및 뤼슈 개설
 - 1,200여개의 공동체(뤼슈), 생산자 8천명, 소비자 17만명, 매출 60억원(2016년 기준)
- ‘협력경제’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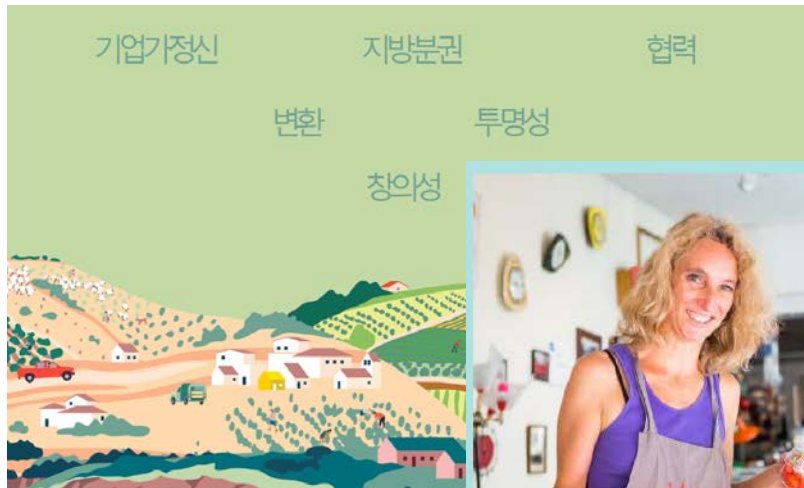
푸드 어셈블리 사명

- 농장과 주변 지역의 신선한 지역 음식을 쉽게 접하며 보다 잘 먹고 사는 길을 만들어 사람들의 힘을 키운다
-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수단을 만든다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난, 신선하고 양질의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보다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한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전환을 지지한다.
- 음식과 농업 분야에서 보람있고 정당히 보수가 지급되는 일자리의 창출과 성장을 지지한다.
- 공동체와 웰빙을 가꾸는 데 음식의 가치와 역할을 재발견한다.

5. 지역상생(도농상생) 사례

지역농부와 도시소비자 연결 플랫폼을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

■ 푸드 어셈블리의 가치 및 역할



• 푸드 어셈블리 역할

- 지역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웹 플랫폼
- 농민들의 힘을 키우는 웹 플랫폼
- 인식제고



어셈블리를 시작하는 좋은 이유

- 여러분의 마을이나 주변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를 재창출.
- 지역의 농민과 축산인, 음식 장인을 지원.
- 사람들이 적절한 가격에 보다 양질의 먹거리를 구할 수 있음.
- 큰 푸드 어셈블리의 일원으로 독특한 창업 프로젝트 시작.
- 부가 수입.

어셈블리 호스트의 주요 책임

- 회원들, 농민들과 음식 장인들을 한데 모아 공동체를 온라인과 실제에서 활성화.
- 매주 온라인 판매를 조직.
-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훈훈하고 넓고 찾기 쉬운 장소를 구해 물품 수거 조직.
- 이웃한 어셈블리들과 협력하고 나눔.
- 생산물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회원간의 대화를 원활이 이뤄지도록 지원.

어셈블리 호스트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은?

- 어셈블리를 조직하는 일은 매주 10-15시간이 소요됨.
- 어셈블리 호스트의 수입은 생산자의 세전 매출의 8.35%

6. 지역상생(도농상생) 사례 시사점

도시와 농촌 마을의 미래를 서로에게 찾는 지역상생(도농상생)

■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민관협력적 생태계 구축

도-농 상호 문제해결 또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감형성, 민관협력

- 도시-농촌 공동체 서로가 앓고 있는 문제와 요구를 공감하고 과제 찾기
- 도시-농촌 상호 중심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사업 만들기
- 사업실행을 위한 마을주체 형성과 민관협력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관계

- 도-농 공동체 주체들의 선협적 신뢰 구축(간담회, 회의, 교류 등 → 주체의 명확함 및 의지와 열정 확인)
-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완 및 확대
- 선협적 신뢰의 확산과 사업공유(주민들과의 공유, 상호 교류 등)

6. 지역상생(도농상생) 사례 시사점

도시와 농촌 마을의 미래를 서로에게 찾는 지역상생(도농상생)

■ 사업의 안정적 지원체계와 성과의 공유 및 확산

도-농 마을 지역상생(도농상생) 사업 지원체계 구축

- 도-농 공동체 중심의 사업실행
- 지역공동체-중간지원조직-행정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업이 안정되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공모사업 지양)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 만들기

- 도시-농촌 공동체 주민까지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
 - 지역상생 권역위원회, 지역상생 정책박람회(민관협력 세미나),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간담회 등
- 타 자치구-타 시군 농촌공동체 교류 시도 확산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정책환경의 변화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과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 상생전략 필수

- 지역상생 전략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상생협력 분위기 정착
- 사회혁신의 복제와 확산(주민자치회, 혁신 읍·면·동 정책 등)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의 강화와 ‘사회적 농업’ 의 대두

-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공동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 이익 창출측면에 기여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정책환경의 변화

<사회적 농업 기능 구분>

기능	내용
공공의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링과 건강회복 등의 직접적인 보호와 예방 효과 - 체험 및 관광 등의 수단
교육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이 필요한 기술과 정보, 지식 등을 교환 - 귀농·귀촌자 기술습득, 서울시민 재능기부를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통합과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인 노동과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지원 - 서울-농촌 일자리 창출 및 일손지원, 농 관련 창업·창직 지원
지역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과 연계된 모든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효과 -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공동체 사업의 다양화 등 - 서울과 농촌의 다양한 조직 간 사회적 연대는 풀뿌리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원동력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2018년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사업방향 및 과제, 추진전략

목표	『상생공동체 복원,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사회’건설		
방향	서울과 지역의 호혜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	민-민 협력, 민-관 협력 강화	사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발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필요성 공감 및 실효성 발휘 • 서울과 지역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운영 • 민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추진 사업 간 연계 • 서울시 각 부서 상생교류사업과 사업단 사업 연계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바탕이 되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지역의 민관협력 주체 간의 협의 활성화 • ‘서울-농촌 마을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의 성과가 행정이나 개별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성과로(신규사업 발굴 또는 기존사업 활성화) • 서울시 각 부서 상생교류사업과 사업단 사업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기획기능 강화 • 서울-지역 간 정보의 교류 및 일상적 의견수렴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준비를 위한 과정

■ 성찰로부터 시작

- 국가주도 산업화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도시와 농촌의 위기
- ‘분업구조’에서 ‘협력구조’의 지역상생으로…
 - 상생협력을 통한 순환과 공생의 사회
- 협력을 통한 상생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
 - 수평적 사고 : 도시와 농촌의 시대가치 변화와 지향에 따른 협력적 관계 인식(대안의 삶과 구조 지향=행복가치)
 - 상생사업 추진을 통한 점진적인 협력적 생태계 구축
 -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안에서 자발적인 협력관계 만들기
 -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의성의 상호 조장 : 일상적인 소통과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와 지역활성화 상호 기여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준비를 위한 과정

■ 상호 토론을 통한 필요성 공감 및 기획을 통한 준비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서울시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지역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활동가 공론화
 - 서울과 농촌 공동체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설명회(각종 회의 개최 시)
 - :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 : 국내외 사례공유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사업 추진 체계

■ ‘서울-농촌마을 상생 네트워크 운영(안)

▪ 전국 5개 권역+서울시 5개 자치구 시범사업 추진('18년)

- 전국 5개 권역 : 경기권역, 강원권역, 충청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 중 1개 시·군
- 서울시 5개 자치구 : 희망하는 자치구, ‘마을인연맺기사업’ 지속적 활동 자치구 등 선정
- 전국 5개 권역에서 선정한 5개 시·군과 서울시 5개 자치구가 함께 하는 교류회의 진행
 - : 1개 시·군+서울시 1개 자치구 매칭
 - : 상호 논의를 통한 사업아이템 선정 = 사업비 지원 및 모니터링(사업단+서울시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지역 중간지원조직)
 - : 1개 권역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공동체 주체가 존재하는 시·군과 연합하여 사업추진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지역상생민관협력 세미나 개최를 통한 평가 및 보완

공감대 형성

- 사업의필요성공감 및 협약
 - 중간지원기구 또는 단체
- 서울 자치구 활동가 및 지역 주체에 제안
 - 아이디어 고민



교류회의(권역별)

-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계획 논의
 -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 실행 아이디어 결정



사업실행

- 사업 실행비 지원(사업단 사업비)
- 사업실행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사업실행 점검 및 평가
 - 사업단+중간지원조직+지역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서울과 농촌마을 상생하기 사업 내용(예시)

■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사업 : 「지역상생 먹거리 플랫폼」

- 사업목적 : 지역(농촌) 중소가족농 생산자와 서울시 자치구 공동체와 교류를 통해 판로(먹거리, 가공품 등) 지원 및 교류
- 기대효과
 - 지역(농촌) 소농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 확보
 - 자치구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요구에 대한 부응 및 서울시 자치구 공동체기금 확보
 - 서울시 자치구 단위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활성화
 - 다양한 지역상생교류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서울과 농촌마을 상생하기 사업 내용(예시)

■ 서울시 자치구 주체 및 지역생산자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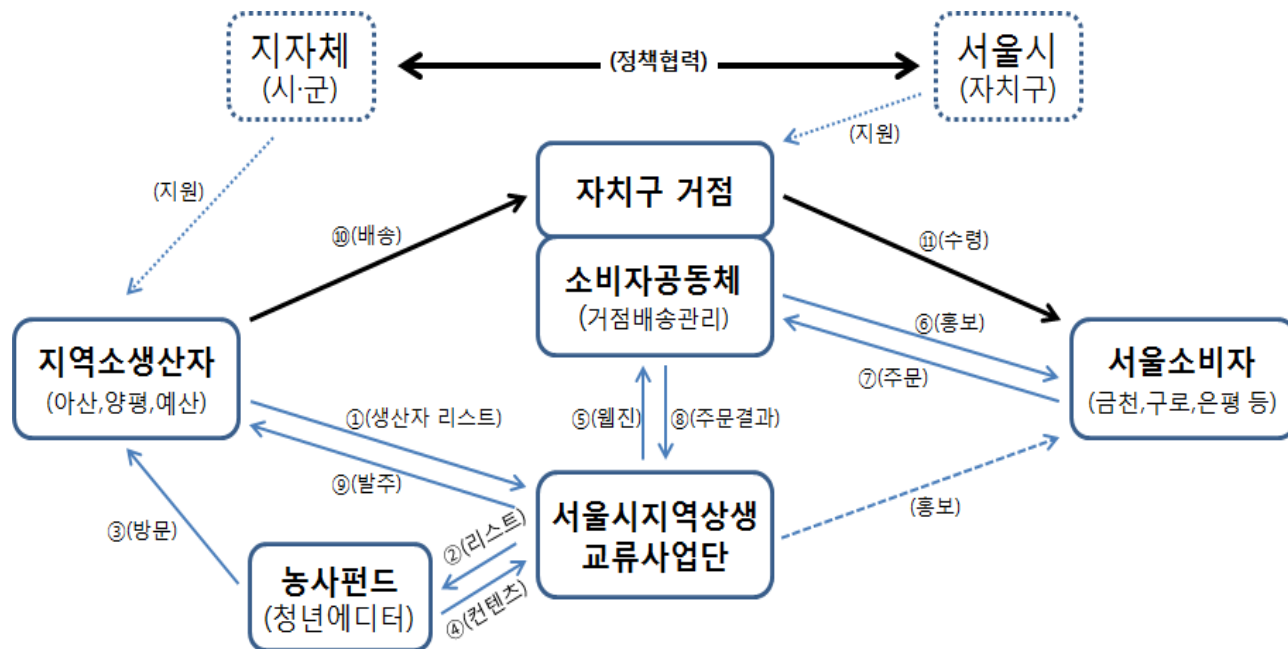
자치구	운영 주체	자치구 배송 거점
금천구	건강한 농부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커뮤니티센터
은평구	은평 도시농업 네트워크	마을카페 물푸레(도서관마을)
구로구	서울 도농상생협동조합	구로시민센터
노원구, 마포구, 동작구	도시농업그룹	천수텃밭, 문턱 없는 밥상, 마을카페 나무
총 6개 자치구		

지자체	생산자 주체
양평군(10농가)	양평 로컬푸드 협동조합
예산군(30여 농가)	예산군 생산자 네트워크
아산시(10농가)	아름드리 영농조합법인, 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괴산군(시험운영 지역)	웅골영농조합법인
총 4개 지역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서울과 농촌마을 상생하기 사업 내용(예시)

<자치구 공동체 판매 개념도>



[지역소생산자(시·군)]

- 소생산자조직화
- 참여농가 의향조사
- 생산자리스트 정리 및 전달
- 주문량 확인 및 배송

[농사펀드(청년에디터)]

- 생산농가 취재
- 콘텐츠 생산 및 전달(사업단)
- 농사펀드 홈페이지 등재
- 펀딩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 생산농가 리스트 확보
- 소비자공동체(자치구) 협의
- 콘텐츠 활용, 웹진 제작
- 웹진 전달(소비자공동체)
- 주문내용 취합
- 농가발주

[소비자공동체(자치구)]

- 웹진홍보
- 주문접수 및 확인
- 거점배송(주문자) 관리
- 거점배송센터 관리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경향신문

2017년 11월 02일 목요일 012면 사회

“안전한 먹거리·안정적 판로 연결해 드려요”

‘도농 상생’으로 공존을 일구다

■ 서울시, 소농가 생산물 판매 지원 ‘서로이음’ 사업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이흥건씨는 지난 9월8일을 잊을 수 없다. 자신이 가꾼 포도가 서울시민과 직거래로 처음 만난 날이다. 이씨는 그날 포도를 트럭에 싣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울 금천구청 커뮤니티센터로 향했다. 서울시 ‘서로이음’ 사업에 참여한 금천구 주민들은 이씨의 트럭이 도착하자 서둘러 포도를 옮기는 작업을 도왔다. 이날 이씨가 싣고온 포도는 75박스, 120만원어치다.

“포도 향과 색이 맘에 들어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꾸민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받은 이씨,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한 주민들 모두 얼굴에 미소가 만연했다.

“저기 더 저렴한 게 있어요.” 배송을 마친 이씨는 미소가 부를 건넸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보리, 참쌀, 울무, 콩을 갈아 만든 것이다. 이씨의 마음이 전해지는 선물을 받은 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교류했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씨도 “이제야 우리가 만나게 됐다”며 “소규모 농사를 짓는 시골 농부들은 이런 만남을 언제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서로이음사업이 새로운 순환적 먹거리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로이음은 지역 소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지난 8월 첫선을 보인 ‘서로이음’ 웹진. 서울시 제공

생산·소비자 정보 교류·소통 웹진에 소개, 공동구매 유도
양평 등서 생산 유기농산물
서울 3개 지자체 ‘거점 배송’
순환적 먹거리 협력 이뤄내

소비자는 금천(커뮤니티센터), 은평(마을카페 물푸레), 구로(구로시민센터) 등 서울 3개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들이다.

서로이음은 웹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쌍방향 정보 교류를 하며 소통한다.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발간하는 이 웹진은 자치구 공동체를 포함해 소모임 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온라인 배포된다.

지금까지 두 차례 발간된 웹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소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금천구에 포도를



경기 양평군에서 유기농 포도 농사를 짓는 이흥건씨(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9월 서울시가 도농 상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로이음’ 사업을 홍보하는 팸플릿을 들고 서울 직거래 소비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배송한 이씨가 유기농업을 하는 이유 그리고 충북 괴산에서 전도복숭아 농사를 짓는 박형백씨, 충남 아산에서 배 과수원을 하는 김복자·장준걸 부부 등의 삶이 녹아있는 농사이야기가 갖 수확한 싱싱한 농산물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소비자는 이 웹진에 소개된 소농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 구매하고 있다.

배송은 자치구 공동체가 공동으로 구매하면 지역 소농이 직접 ‘거점 배송’하는 방식이다. 마우스 클릭

한번이면 집앞으로 어떤 물건이든 배달되는 시대에 개별 택배가 아닌 거점 배송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서로 얼굴을 보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양평지역 소농 모임인 두물네트 워크사무국장 이나영씨는 “농부가 당당하게 키운 농산물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서로이음을 통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청정지역 양평 두물머리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유기농산물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윤희천 서울시 대외협력담당관은 “지역 소농가 생산물 판매 지원을 위한 서로이음 웹진 발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라며 “서울시민에게는 지역 소농 이야기를 공유해 신뢰 가능한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통의 플랫폼이 되고, 생산자는 자치구 공동체를 통해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choi@kyunghyang.com

6.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서울과 농촌마을 상생하기 사업 내용(예시)

■ 일자리 교류사업 : 도농일자리 교류(농촌에서의 삶과 일 경험)

- 사업목적: 서울의 일자리 부족과 농촌의 일손 부족을 매칭하여 농촌일자리 경험 및 귀농귀촌 희망자 정착 지원
- 기대효과
 -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 및 도시민 일자리 창출
 - 농촌일자리 정보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도농교류협력 기반 조성
 - 귀농·귀촌 예비단계로서의 경험 축적

■ 귀농·귀촌 관련 사업 : 귀농·귀촌 멘토링

- 사업목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과 지역 멘토 연결 및 상시적인 도농교류 촉진
- 기대효과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의 준비 내실화 및 안정적 정착
 - 귀농·귀촌 멘토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 청년 귀농·귀촌 특화 프로그램 추진 가능(청년들의 창농(創農)과 창직(創職) 지원)
 - 서울시 체류형귀농체험장 사업 등과 연계 가능

7. 서울과 농촌의 마을 상생하기

서울과 농촌마을 상생하기 사업 내용(예시)

■ 마을 간 교류사업 : 농촌체험 및 휴양

- 사업목적 : 먹거리 교류, 일손교류 이외에 서울-농촌 마을 간 교류활동으로 확장함으로써 상생공동체 분위기 조성
- 기대효과
 - 일회적인 자매결연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마을 간의 교류 활동 기대
 - 마을만들기 정보의 교류와 역량축적의 계기 마련
 - 청소년 인성교육, 직업탐색, 아토피 치유학교 등 특화된 교류프로그램으로 발전 모색

■ 문화, 예술, 청소년 교류, 교육 등 분야의 교류사업

■ 도시농업을 통한 교류사업



감사합니다.